

## 토박이말로 여는 국어 갈배움 이야기

염시열 · 만수초등학교 국어 수석교사

우리말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오랫동안 가축되어 왔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 말글을 사랑하는 마음은 깨어 있다. 하지만 정작 그가 쓰는 말은 별이 덤이 큰말을 좇아 쓴다. 아마 그 깨어 있는 맘은 주시경이 《이온길잡이》에서 밝힌, 다시 고쳐 쓰는 마음일 텐데 그렇게 하질 않는다. 오롯이 이적의 별이에 머무는 말글살이만으로는 들은말을 생각 없이 쓴 탓에 줄어드는 우리말의 어려움을 풀 어 가기 어렵다. 그렇다고 우리말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그냥 지나친다면 너무 슬픈 일이다. 슬픔은 딛설 때 아름다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말이 없어지거나 아예 설자리마저 없어지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오늘날 명동의 간판이 온통 들은말 투성일지라도 초·중등 배움터에서는 우리말과 글을 다듬어 쓰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말을 사랑하는 것이다. 즐겨 써야 할 토박이말의 뜻을 표준국어대사전에 서는 ‘해당 언어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이라고 적고 있다. 이 글의 낱선 말들도 본디 있던 말에 애바탕(기초)을 두어 새로 만든 말이기에 토박이말이다. 이러한 터수를 안다면 우리말 쓰기에 까탈을 부리는 일은 멈추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말 사랑은 우리 어린이들이 일본 식민 교육의 틀을 벗

어나 일껏 배달겨레의 한말글 새얼(문화) 배움새로 가르치고 배우는 갈배움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야 명동 간판의 장삿속을 말글살이 품에 안고 이웃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그 보기를 토박이말로 여는 국어 갈배움에서 만나본다.

## 갈배움(수업)은 어떻게 하지?

좋은 갈배움은 알기 쉬운 우리말로 우리나라 사람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국어 갈배움의 일품에서는 겨레의 삶을 가축한 몸말이 생각씨가 된다. 무슨 말을 들으면 우리 몸이 몸소 느낀다. 그 다음 골얼줄(뇌신경)에서 생각하고 뜻을 종잡는다. 골얼줄이 종잡은 뜻은 입으로 말하면 입말이 되고 손으로 적으면 글말이 된다. 곧 입말과 글말은 우리 몸이 말하는 새물내기 월이다. 좋은 갈배움에서는 배움이 생각한 것을 말하고, 또 저가 말한 월을 밀감 삼아 갈배운다.

그런데 국어 교육 과정마저 갈말(학술용어)이 온통 들은말 투성이다. 들은말은 얼추 뜻풀이에 그치거나 뜻 줄기를 따를 뿐이다. 그래서 말소리 낱말밭이 작다. 뜻을 외워야만 쓸 수 있다. 우리 토박이말은 적어도 말소리 줄기와 일 줄기, 뜻 줄기를 가축한 줄기말 쉼이 있다. 따라서 큰 낱말밭을 만들 수가 있다. 큰 낱말밭은 안 외워도 말을 잘 하고 글을 잘 쓰게 하는 밀천이 된다. 따라서 토박이말 말셈머리(어휘부/머릿속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무엇보다 쓸모가 있다.

말을 잘 배우는 가늌지는 갈배움에서 어떤 터밀물 생각 틀을 바탕으로 말글을 가르치고 배우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도 우리말이 가축해 온 터밀물 생각에 대한 관심이 적다. 그것은 우리말의 줄기와 테켜(층위) 열개를 알지 못하거나 배우지 않은 까닭이다. 낱말셈의 줄기

와 테켜 열개를 볼 맘을 가지고 말글의 ‘듬(짜고 꾸미어지는 법)’을 밝혀 쓰면 우리말이 저절로 몸에 밴다. 몸에 밴 우리말은 말글살이를 넉넉하게 하는 말셈머리(머릿속 사전)의 속살을 이룬다.

## 무슨 생각으로 배울까?

한말글(국어) 갈배움 과정에서 생각의 터밀물(원형 prototype)을 천지인 생각 열개로 보느냐, 불법승 생각 열개로 보느냐에 따라 그 갈배움 속살이 달라진다. 천지인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불법승은 부처와 법과 수행자가 있다는 생각 열개다.

이러한 것들이 오래 전에 들어왔기에 익숙하긴 하지만 우리에게서 터박물(조형 祖形)이지 터밀물(원형 原形)은 아니다. 그 까닭에 중국 학생과의 토론에서 ‘천지인’은 중국의 문화 터밀물이란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천지인 사상의 터무니가 중국의 옛 책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 열개 터밀물(원형)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몇 년을 찾아 헤맸다. 뒤끝은 멀리 있거나 잊혀진 곳에 있지 않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 뜻밖이었다.

생명평화순례를 함께하면서 삼례를 지날 때 도법스님께서 ‘삼례’란 이름이 가진 뜻을 물으셨다. 옆에 있던 삼례 분이 이서구와 진묵대사의 행적과 아랑곳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이서구와 진묵대사는 조선 중기 이후 사람이 아닌가 하는 물음이 생겼다. 집에 돌아와 말미를 따져보니 삼례는 ‘용이 솟아오른다.’라는 뜻이 담긴 “사미내> 사미르내”가 말미이고 ‘이서구와 진묵대사가 절을 세 번 하였다.’라는 삼례(三禮) 이야기는 민간 말미이었다. 사미르내를 말미으로 하는 삼례는 임실과 함께 토박이말이다.

이때 주시경의 짬뽕갈을 여러 달 동안 듣보던 터라 '짜고 꾸미어지는 밥'이란 뜻의 '듬'과 아랑곳한 말밑 터무니가 쌓여 있었다. 살피면 한듬뵈(대둔산), 듚지뵈(둔산), 한듬절(대둔사)과 아랑곳한 땅 이름에 우리 생각 열개의 터밑물이 가축되어 내려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말의 살피(경계)를 긋는 말이 절과 사찰(寺刹)이다. 중국으로부터 사찰이란 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비손터(신양터)를 부르는 이름이 '털(毛) 절'이다. 지금도 절이란 글자 현판은 드물지만 절이란 말은 그대로 쓰인다. 여기서 '삼'은 삼국유사 '흥법3 아도기라'의 '多麼者乃鄉言之稱僧也'의 '삼마(승)'을 뜻한다. 이를 밑감으로 '겹이름써 이름의 터밑(복합 명사 형성의 원리)'을 틀거리 삼아 불교의 삼보 사상 열개에 비추면 우리 고대 사상의 열개를 '한듬삼'으로 자리매김시킬 수 있다.

우리 겨레의 생각 열개 터밑물인 '한듬삼'은 하늘과 법과 목숨을 이야기한다. 가까이는 동학(천도교)의 인내천(人乃天)과 아랑곳하고 멀리 세클다(삼태극)의 터밑을 나든다.

## 우리말로 수꿈 꾸는 사람들

한말글 갈배움의 듚(법)은 무엇일까?

주시경은 '국어문법 64쪽 잡이'에서 어떤 일을 드러내는 말의 뜻을 월과 아랑곳한 말과 그림과 맘을 살피 풀이하라고 했다. 이는 말뚝을 배우는 차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배움 차례물(과정)을 드러내는 우리말로 '알음알이'가 있다. '겹줄기말인 '알이'를 쓸 것인가, 외줄기말인 '전개'를 쓸 것인가'를 가름하는 일은 우리말의 연모속을 판가름하는 일이다. 토박이말을 일껏 쓸 수 있는 말썸머리는 터무니 낱말을 불러 수꿈 꾸는 아이가 된다. 이는 국어 갈배움 일뚝의 '낱말썸 불리기와 새물내기'로 다가온다.

덧나면 갈잎과 낙엽도 갈피말(경계어)이다. 갈잎은 '가을의 빛깔과 냄새와 모습과 자취'가 함께하는 겹줄기말이고 낙엽은 '떨어진 잎'이라는 뜻을 가진 들온말로 외줄기말이다. 수뭇은 그냥 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곳품(시공간)의 자취를 넘나들 때 꾸어지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쓸모 있는 겹줄기말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요즘은 혁신학교 인증학교인 삼우초등학교 초기에 여러 차례 갈배움 갈말(용어) 말모임을 가졌다. 그 결과 '마당', '벼름소, 맞이, 알이, 내기'들과 같이 터무니가 뚜렷한 말은 같이 쓰고 나머지 어섯(부분)은 교사의 마음가짐에 따라 쓰기로 하였다. 내들면 다음과 같다.

길말 가운데 낫춤말(비어)인 '주제(꼬락서니)'와 동음이의어인 '주제(主題)'는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떠오르게 하는 모순이 있다. 모순이 드러난 말을 굳이 써서는 안 되는 까닭에 '주제(主題)'를 갈음하는 말로 최현배 선생님이 쓰셨던 '벼름(안案)'과 '몸소'의 '소'를 말밑으로 하는 '벼름소'를 쓴다. 이는 일본식 한자어를 마구 쓰는 모순을 덜어서 보기가 된다.

마음놀(명상) 교실 이름을 '명상실'로 할 것인가? '마음뉘음방'으로 할 것인가? 여러 차례 말모임 끝에 '마음뉘음방'을 쓰고 있다. '삼우 만남 도서관'으로 할 것인가? '삼우 책마루'로 할 것인가? 하는 말모임(토의)에서는 '만남 도서관' 쪽이 많았다. 그 뒤 전주시 송천동에 '책마루 어린이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지다'를 말밑으로 하는 두레지기(팀장), 다모임지기(전교어린이 회장), 뜸지기(학급회장/반장), 모듬지기(조장)들과 같은 말도 교사 말모임에서 의견을 나눈 다음 쓰고 있다. 운동회를 뜻하는 '뜰놀이 마당에 던바공 자리(부스)'를 마련한 일도 말모임에서 골라잡은 말이다.

## 한말글 갈배움의 사상과 언어

우리말 말본이 품은 생각듬(사상)과 말글로 가르치고 배우는가?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은 배달겨레 생각듬인 ‘홍익인간’이란 교육 이념을 총론에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각론인 교육 과정 해설서나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들어온 갈배움 이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총론의 ‘홍익인간’은 얼이음 ‘한듬삼’ 생각 얼개와 우리말을 바탕으로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삶을 갈망하며 사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교육 과정 해설서나 교사용 지도서에 한국학을 바탕으로 한 갈배움 이론이나 갈말이 거의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몇몇한 한말글(국어) 갈배움 마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바탕은 형태론을 마당으로 하는 말소리와 아랑곳한 ‘날말 불리기’가 있다. 날말 불리기의 첫째 섬돌은 말소리를 바탕으로 한 ‘말소리 줄기말’ 미립과 맞닿는다. 둘째 섬돌은 ‘월 쌓기’ 미립이다. 뜻살(의미)의 읊나들(이동)이 월에서 이루어지는 까닭이다. ‘월 쌓기’의 가운은 풀이 씨를 씨날말(핵심어)로 삼는 데 있다. 이는 ‘뜻 줄기말’과 아랑곳하다. 비슷한말이나 맞선말의 풀이씨와도 맞닿는다. 셋째 섬돌로 중요한 것은 말과 아랑곳한 일이다. 이는 ‘일 줄기말’과 아랑곳하다. 이러한 ‘날말 불리기’는 우듬지씩(도설/마인드맵)의 얼개와 속살이 되기도 한다.

둘째 바탕은 월갈(문장론)을 마당으로 하는 ‘글 쌓기’가 있다. 꼭지글은 메지(단락)와 대목(문단)으로 이루어지는 꼭지글의 째듬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글판 아라리가 드러난다. 여기까지가 세셈나눔(삼수분화)의 생각 얼개라 할 수 있다.

셋째 바탕은 ‘갈책 쌓기’가 있다. 세셈새얼(삼수문화)을 미루어 보고 책을 쌓는 위음새(편집)의 ‘갈책 쌓기’가 이루어지도록 살닿는 애씀이 있어야 한다. ‘갈책 쌓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시경의 ‘셋에 셋을 세습한 아홉’과 같은 세셈나눔의 생각 틀본(사고 모형)이 쓸모가 있다.

그에 따른 일몸은 한국 새얼을 밑감으로 한 갈배움의 차례와 속살을 가축하고 있다.

또한 몸소 배움 일몸을 내용으로 작은 책을 엮어 보는 일은 배움을 갈망하는 열개를 째듬결(조직적)로 익히는 미림이 될 수 있다. 우리 선인들은 나라나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치른 뒤 책을 만들곤 했다. 그 가운데 궁궐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의궤' 만들기는 오늘날 개정 교육 과정의 만들어 가는 갈배움 열개로 쓸모가 있다. 나라의 큰일을 갈무리하는 마당에 '의궤'라는 책을 만들었던 조선 선인들의 바탕 생각은 다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책은 '의궤, 용비어천가, 훈민정음, 성학십도, 북학의, 기축체의' 들로 수없이 많다. 이들은 엮음새(편집)의 바탕 열개(기본 구조)를 내보이고 있다. 또 《훈민정음》의 어제 서문과 정인지의 후서, 퇴계의 천명도설후서와 같은 글은 오늘날에도 갈책을 만들고 나서 쓴 배움 이야기의 본보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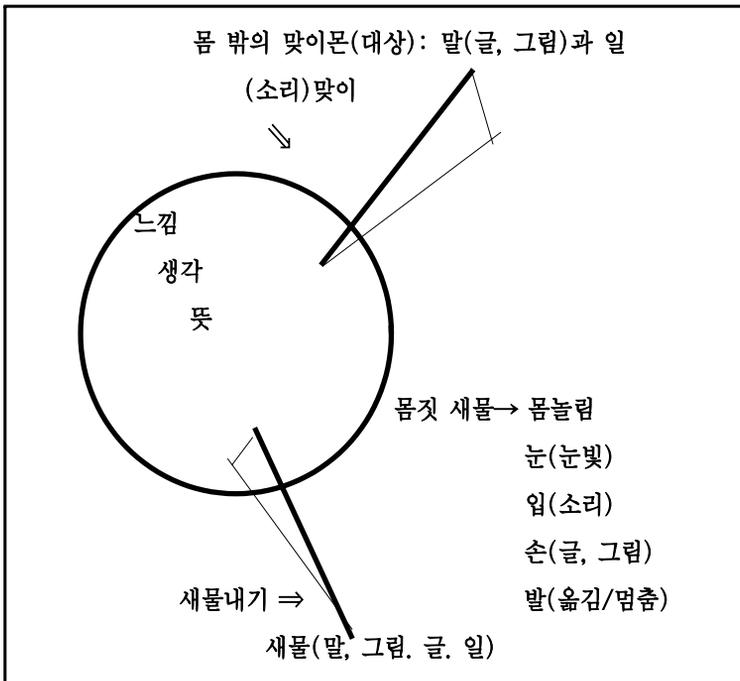
다음으로 수직적 사고와 수평적 사고의 짜임을 드러내는 아홉 섬돌에서 물음과 대꾸를 갈마들다 보면 배움 일몸의 그 속살은 풀이씨의 뜻둥지(의미역) 월에서 절로 드러난다. 이때에 풀이씨를 물음꼴로 바꾸어 물으면 그에 따른 대꾸는 몸의 움직임이나 모습과 같은 몸의 힘씀새(작용)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모든 일의 바탕에 세클다(삼태극)의 생각 열개가 있다. 세클다의 보람새는 한뜸삼(고조선 3보), 삼시세판(하나 둘 셋) 세틀감(삼재), 사람 곧 하늘(인내천), 세놀 읊놀(3장 시조), 세줄기결(째듬갈의 줄기결, 만이결, 금이결) 등이 있다.

## 민나라말로 몸의 느낌뽀 드러내기

민나라말은 느낌뽀(감정)을 잘 드러낸다.

저뽀(자연)의 일뽀(사뽀)을 만나면 눈은 빛으로 느끼고, 코는 냄새로, 귀는 소리로, 혀는 맛으로, 살갓은 닿는 느낌으로, 온뽀은 기운으로 느낀다. 이러한 느낌이 우리 뽀에서 생기면 곱은 생각하고 곱라서 뜻을 중잡는다. 중잡은 뜻은 월이 되어 뽀 밖으로 나오는데 수고하는 뽀은 거의 입과 손이다. 곱에서 중잡은 말의 뜻을 담아 입으로 말하면 입 말 월이 되고 손으로 적으면 글말 월이 된다. 이를 그림으로 마련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말글이 나드는 곱얼줄(뇌신경) 열개

골얼줄 큰골에서 월을 찌는 속살을 미루어 보면 말썽머리에서 풀이 말을 종잡고 풀이말에 이끌리는 맛감(대상)을 가려잡고 이어서 임자말을 붙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말글은 사람이 사는 동안 늘 쓰는 것이므로 늘 배워야 한다. 그 가운데 느낌뫼은 몸이 말하는 애바탕을 이룬다. 따라서 느낌뫼(감정)을 드러내는 화, 두려움, 미움, 사랑, 슬픔, 기쁨, 부끄러움, 긴장들과 아랑곳한 풀이말을 씨날말 삼아 월 쌓기를 꾸준히 익히면 말글살이가 수월해진다. 내들면 제 느낌에 알맞은 인사를 할 수 있고 느낌에 맞는 말을 골라 쓸 수도 있다. 제 느낌을 잘 드러낼 수도 있다. 그러면 말글살이가 즐거워진다. 말 잘 하고 글 잘 쓰면 배우는 일이 재미있고 신이 난다.

몸이 말하는 느낌뫼 풀이말은 우리 뫼과 한속 되어 있다. 뫼의 느낌에 따른 풀이말 줄기말(연관어)을 배우고 익히면 날말썽이 붙어 쓸모가 있다. 이때 우리가 손쓸 일은 느낌 풀이말을 씨날말로 하는 생각씨 줄기말의 죽보기를 만들어 보는 일이다. 곧 느낌 풀이말을 생각씨로 하는 월은 어떤 씨듬지에서 비롯한 생각씨 날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풀이씨 날말을 부려 씨듬지와 느낌뫼의 움직꼴과 그림꼴을 드러내는 짧은 월을 서너 차례 지어본다. 그 속살로 월 쌓기를 하거나 우듬지씩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러면 생각하는 힘이 자란다. 또 편지나 글놀 맘대글 같은 짧은 글을 지어보면 날말 불리기 성금이 더한다. 날마다 조금씩 할 수도 있다. 이레마다 할 수도 있다. 한 달에 한두 차례로 날짜를 종잡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꾸준히 해야 한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다.

## 누리공멸의 새얼에 이바지하는 말글살이

끝으로 토박이말 '월(문장)'의 말밑이 얼이므로 월이 갈말에서 아주

빠지면 얼빠진 교육 과정이 된다.

이를 딛서는 미립이 '토박이말로 여는 한국어 수업'과 같은 한국학 배움새에 있다. 한국학 배움새에 힘입어 우리말로 수꿈 꾸는 사람들이 한말글 갈배움의 생각듬(사상)과 말글을 가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 내 들면 우리말로 갈배우는 몸뻘같은 말글 나들기 열개는 말하는 몸의 느낌뻘을 드러내는 차례와 속살을 선물하고 있다.

이는 저품과 더불어 사는 한웅 5910해의 배달겨레 삶을 일궈 가는 밑천이다. 우리 한말글과 함께하고 더불어 쓰는 우리는 한글에 힘입어 누리공멸(지구촌)의 새얼을 늘품시키는 새뜻한 말글살이를 열고 있다.